

「담배는 커피나 홍차 따위와 같은 기호품이므로 누구나 그것을 즐길 권리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마시고 싶지 않은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을 터이다. 게다가, 담배는 커피 같은 것과는 달리,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해친다.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또, TV에서 방영되는 광고는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흡연자의 대다수는 어린시절 멋있는 이미지에 끌려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담배의 해악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단지 멋진 이미지만으로 담배에 대한 환상을 품게 하는 광고는 분명 잘못되어 있다. 어떤 상품을 팔 때는 그 결함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할 터이다. 결함을 숨기고 판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닌가?

담배는 일종의 마약이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담배회사의 윤리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